

# J.M. 콧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통해 본 인간의 ‘눈멀’(blindness)이 갖는 상징적 의미

이 정 일

## I. 서론

“악에서도 선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에서도 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다.”(Saramago 2009: 300)

실명(失明)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선택적 지각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첫 번째 장애인 실명은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자로서의 맹인(the blind person as seer)은 문학에서 자주 다루는 이미지이다. 호머(Homer)를 논할 때 그의 눈멀(blindness)은 핵심 이미지이다(Beecroft, 1). 문학에서 눈멀은 위대한 작가를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데리다(Derrida)가 “눈먼 작가들의 위대한 전통”에 포함시킨 호머, 존 밀턴(John Milton),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는 눈멀이 갖는 문학적 힘을 보여준다(Derrida 39). 이 경우 ‘실명’이란 단어는 ‘눈멀’이란 말로 대체되곤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Oedipus)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의미를 깨닫자 스스로 제 눈을 찌른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서, 글로스터(Glouster) 백작의 실명(blindness)은 리어왕의 광기(madness)와 동일시된다.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잘 넘어졌다”(I stumbled when I saw, 4.1.2)란 글로스터의 고백은 육체적, 영적, 그리고 지적 무지를 눈멀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눈먼 자만이 갖는 깨달음이란 관점을 제시한다. 실명이나 눈멀 모두 시력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지만, 눈멀은 은유로서 통찰과 지혜 혹은 편견, 불명예, 어리석음의 동의어로 쓰인다.

눈멀 혹은 눈먼 자/맹인(the blind)에 대한 문학적 예들은 20세기 문학에도 풍부하게 나타난다(Kleege 113; Linett 27-28). D.H. 로렌스(Lawrence)의 단편소설 「맹인」(The Blind Man, 1922), G.K. 체스터턴(Chesterton)의 「아폴로의 눈」(The Eye of Apollo, 1911), H.G. 웰즈(Wells)의 「맹인의 나라」(The Country of the Blind, 1904), 플로렌스 바클레이(Florence Barclay)의 『장미화원』(The Rosary, 1909), 헨리 그린(Henry Green)의 『실명』(Blindness, 1977), 레이몬드 카버(Raymond Carver)의 『대성당』(Cathedral, 1981)에선 눈먼 인물들을 문학적 장치로 활용한다. 눈멀은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의 영화 「시티 라이트」(City Lights, 1931)와 J.M. 싱(Synge)의 극작품 「성인들의 우물」(The Well of the Saints, 1905)에서도 중심 역할을 한다. 눈멀은 시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인 데니스 레버토브(Denise Levertov)는 눈멀을 시인을 구별시키는 요소로 이해한다. 레버토브는 「세계의 시인」(The Poet in the World)에서 “시인은 눈이 먼 채 태어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를 인지한다.”(Levertov, 107)고 주장한다. 시인은 시적창조를 지각(perception)으로 이해하며, 이런 인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타자(들), 동물들, 식물들을 인식한다고 이해한다(Gámez-Fernández, 287).

이런 눈멀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말한 예외상황(비상사태)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감벤은 예외상황을 주권개념을 설명하면서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법적 한계 개념을 보여주는 예외상황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로마시대의 죄수이다. 호모 사케르는 죄수이기에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박탈당하고 생물학적 생명만 유지한다. 사케르는 로마시대엔 “건드렸을 경우 자신이나 남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 혹은 사물” 혹은 “살해당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의미했다(Agamben 2008:168-9, 177). 일상에서 사케르는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겪은 이라크 포로들을, 문학작품에선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변신」(*Metamorphosis*)에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Gregor Samsa)를 말한다. 잠자는 잠에서 깨어보니 거대한 곤충으로 변한 것을 알게 된다. 그의 변신은 결국 가족에게 짐(burden)이 된다. 그리고 끝내 그의 존재는 무시되고 의도적으로 삭제된다. 이러한 박탈의 삶은 J.M. 콧시(Coetzee)의 『야만인을 기다리며』(*Waiting for the Barbarians*, 1980)와 주제 사라마구(José Saramago)의 『눈먼 자들의 도시』(*Blindness*, 1995)에도 투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감벤이 벤야민을 따라 ‘박탈의 삶’이라고 부른 삶, 곧 ‘발가벗은 생명’(bare life)에 주목한다.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야만인 소녀, 노인과 소년이라는 타자뿐 아니라 변방이지만 제국의 관리로 있는 치안판사(Magistrate)조차 그 지위를 잃자, 일순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한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의사나 다른 등장인물들 역시 눈이 멀게 되자 직업을 통해 얻었던 사회적 위상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이름이 아닌 눈먼(blind) 상태 혹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따라 첫 번째로 눈이 먼 사내, 검은 색 안경을 쓴 여자로 불린다. 콧시의 야만인 소녀(the barbarian girl)처럼 사라마구의 안과의사(the doctor)도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발가벗은 생명’이 된다. 이런 전략, 추락의 과정을 촉진하는 매개체는 콧시의 텍스트에선 고문(torture)이고, 사라마구의 텍스트에선 실명(blindness)이다. 이 두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고문 혹은 실명을 통해 동물-되기(becoming-animal)를 강요당한다. 동물-되기는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졸(Joll) 대령, 치안판사, 야만인 소녀, 고문으로 살해된 노인, 안과의사, 안과의사 아내, 깡패두목, 검은 안대를 한 노인 모두 ‘눈은 멀었지만 볼 수 있는 혹은 볼 수 있지만 눈이 먼’ 변형 곧 영토의 탈영토화를 보여준다.

‘동물-되기’(becoming-animal)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본 논문에선 이 용어를 인간의 추락된 위상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자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야수성(the savagery)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치안판사는 제국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고, 동료에서 죄수로 추락한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실명은 직업과 성별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을 ‘눈먼 자’(the blind)란 동일한 범주로 묶어버린다. 군인들에게 눈먼 시민들은 그저 우리 안에 가뉘야 하는 동물일 뿐이다(cf Saramago 1997:80). 본 논문은 고문과 눈멀이란 두 가지 렌즈를 통해 인간존재의 의미를 해독하려고 한다. 글로스터는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잘 넘어졌다”고 고백했는데, 이런 모순과 역설은 콧시와 사라마구의 작품에도 나타난다. 감옥과 정신병원에 갇힌 죄수와 시민은 고문과 실명으로 ‘목소리가 없는 신체’가 되지만, 고문자 혹은 백색실명은 ‘신체가 없는 목소리’가 된다. 본 논문은 이런 모순된 관계를 통해 인간의 존재적 의미를 읽으려 하며, 이 과정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동물-되기’ 개념과 일레인 스캐리(Elaine Scarry)가 『고통 받는

신체』(*The Body in Pain*)에서 다룬 고문(torture)에 대한 논의도 활용할 것이다.

## II. 『야만인을 기다리며』를 통해 본 강요된 ‘동물-되기’

스캐리(Scarry)는 『고통 받는 신체』 1장에서 “고문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고통은 죄수에게 존재하지만 고문자에게는 부재하며, 심문은 고문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죄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스캐리는 죄수와 고문자에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대조시켜 설명한다. 죄수의 경우, 신체와 고통은 존재하지만 목소리(voice), 세계(world)와 자아(self)는 부재한다. 고문자의 경우, 목소리, 세계와 자아는 존재하지만 신체와 고통은 부재한다(Scarry 46). 죄수와 고문자에게 고통은 가해자와 희생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은 희생자의 신체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스캐리는 “희생자의 고통이 커질수록 고문자의 세계도 커진다.”(37)라고 설명한다. 이런 억압적인 상황은 고문과 고문실을 부르는 이름에도 나타난다. 희생자의 고통을 브라질에선 ‘전화’로, 베트남에선 ‘비행기 타기’로, 그리스에선 ‘모토롤라’로, 필리핀에선 ‘산후안 다리’라고 부른다. 반면 고문행위는 아르헨티나에선 ‘춤’으로, 필리핀에선 ‘생일파티’로, 그리스에선 ‘오르되브르’, ‘티 파티’(tea party), 혹은 ‘토스트를 곁들인 티 파티’라고 부른다(44). 이런 은유적 환원은 고문실에도 나타난다. 잔혹한 고문이 행해지는 고문실이 필리핀에선 ‘제작소’ 혹은 ‘안전가옥’으로, 월남에선 ‘시네마 룸’으로, 칠레에선 ‘파란 조명이 비치는 무대’로, 그리스에선 ‘게스트룸’으로 불렸다(28, 40).

힘의 역학 관계에서 제국과 식민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정리된다. ‘지워진 사람들’(the erased)은 이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은 말미에 지워진 사람들을 언급한다. 지워진 사람들이란 슬로베니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할 때 영주권을 등록하지 못한 18,305명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인디고 연구소에 따르면, “1992년 2월 26일, 이들은 한순간에 법적인 절차나 정당한 통고없이 주권을 박탈당했다.”(인디고연구소 309).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세계란 텍스트’(world as a text)에서 억압하거나 삭제하며, 이 과정에서 피지배자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같은 방식으로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변방에서 평온한 일상을 즐기던 사람들의 세계, 자아와 목소리는, 졸 대령(Colonel Joll)을 통해 고통 혹은 강요된 동물-되기를 통해서, 전부 혹은 거의 상실된다. 이것은 20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14세기를 산단테(Dante)의 『신곡』(1320)에도 나타난다. 지옥편 13편에서 자살자들은 사후에 나무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오직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만 목소리, 실제론 비명소리를 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동안만, 고통을 느끼는 동안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Dante 66; Lee 213). 따라서 자살자에게 목소리는 고통의 현존을, 목소리의 부재는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J.M. 콧시는 졸 대령과 치안관사를 통해 어떻게 고통이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빼앗을 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 정지된 ‘얼어붙은 바다’를 우리 안에 만드는가를 보여준다.

### 1. 졸 대령의 경우

육체적 고통은 언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자아를 파괴하고 해체한다(Scarry 4,

49, 172).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치안판사는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을 경험하기 전까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타자의 삶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제국변방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치안판사로 등장한다. 그의 꿈은 평탄하게 은퇴를 맞는 것이다. 하지만 타자에 대한 개입은 예외상황을 통해 다가왔다. 그것은 치안판사가 무리에서 뒤처져 구걸로 생계를 꾸려가는 야만인 소녀란 타자의 고통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타자의 고통에 주목하는 행위는 치안판사를 위협에 빠트리는데, 졸 대령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야만인(적)의 고통에 공감하는 치안판사를 “문화의 배신자(a culture traitor)”(Kerr 25)로 간주한다. 치안판사는 변방을 감시하기 보다는 탐구하길 원하는데, 졸 대령은 치안판사의 행위를 친구(friend)와 적(foe)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적대행위로 해석한다. 푸코(Foucault)는 “야만인을 오직 문명과의 관계, 혹은 문명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로만 이해되고 특징지어진다.”(Foucault 195)고 설명했는데, 졸 대령은 푸코의 설명대로 야만인을 문명 밖에 존재해야만 하는 적대적인 존재로만 이해한다. 수잔 보르도(Susan Bordo)는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지는 타자의 발견이다.”(Bordo 45)라고 말하면서 타자를 아는 것이 곧 자신을 아는 것으로 연결시키는데, 대령에게 야만인은 제국이란 텍스트에서 삭제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배제된 내부’로만 존재해야 한다. 야만인은 제국의 ‘적’이자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전쟁기계’이기에 “항상 국가[제국]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Deleuze & Guattari 2001: 461).

변방 주민들에게 야만인들은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야만인들과 접촉하고 거래했기 때문이다. 야만인들은 변방을 문명화하려는 제국의 정착자들에게 그저 “천원주의자, 유목민, 텐트 거주자”(Coetzee 1980:16)일 뿐이다. 물론 변방 사람들은 야만인들을 잔인하게 대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실제론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기고, 그들을 열등하게 대한다.”(Franklin 5). 이런 우월의식은 소설에선 ‘미래의 사람들’(제국 시민들)과 ‘과거의 사람들’(야만인들)로 표현된다(Coetzee 2003:125). 전자는 제국에 포함되고 후자는 배제된다. 졸 대령은 제국 외부의 모든 것을 제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전쟁기계-이란 단일한 범주로 간주한다. 졸 대령에게겐 어부들이나 야만인들이 똑같은 존재일 뿐이다. 거주지, 습관, 언어, 문화도 다르지만, 졸 대령은 “죄수는 죄수야”(Coetzee 2003:39)라고 일축한다. 그에게 타자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타자(one Other)만 존재할 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을주민들 역시 졸 대령에 의해 포로로 포획된 야만인을 “낯선 동물”로 인식한다. 붙잡혀온 이들이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하고 역겨운 냄새를 피우자, 부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음식을 던져주기 시작한다(33-36). 야만인의 존재에 익숙한 치안판사도 동요한다. 야만인들은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존재가 용납되는 익숙한 존재일 뿐이다.

야만인들의 존재는 주민들과 치안판사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용납된다. 불편 혹은 고통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보여준다. 야만인의 존재가 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해석되자, 그들은 즉시 제국의 영토에서 배제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주권이란 자신이 내부화시킬 수 있는 것만 통치한다.”(Deleuze & Guattari 2004:445; Agamben 1998:18)고 지적하는데,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졸 대령은 비상지휘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포획, 속박”(Deleuze & Guattari 2001:815)을 한 뒤 고통을 가해 ‘동물-되기’를 강요함으로써 제국내의 외부(치안판사, 야만인들)를 ‘배제된 내부’로 변형시킨다. 졸 대령은 포함과 배제, 소통과 차단을 조작하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첫 단서는 선글라스(sunglass)이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 감정을 갖는 것이다. 선글라스는 외부 사물과 내부 시선의 교류를 막는 장치처럼 보인다. 수도에서 파견된 정보부 소속의 인물인 졸 대령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출되지 않는다. 그의 이미지는 도입부에서 치안판사와 첫

대면 때 나는 사냥 이야기와 그가 벗지 않은 선글라스로 표현된다. 이런 대조는 눈(eyes)을 통해 암시된다. 치안관사의 눈은 “태양을 향해 열려 있고, 지식과 정의의 인간적인 가치를 설명한다.” 반면 졸 대령은 도덕적 양심에 눈이 멀었는데, 이것은 선글라스를 쓴 채, 내내 벗지 않는 사실로 암시된다.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그의 눈앞에는, 작은 유리 두 개가 철사로 된 둥근 고리에 매달려 있다. 그는 장님인가? 만약 장님이란 걸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장님이 아니다. (Coetzee 2003:5)

눈땀은 소설의 도입부부터 등장한다. 이 눈땀은 주체의 내부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에 투사되는데, 이때 선글라스란 장치로 위장된다. 선글라스는 눈과 눈이 교류하는 것을 금하는데, 이것은 윤리와 연결된다. 제국에선 야만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정마저 불법화되고 조작된다. 딕 페너(Dick Penner)는 졸 대령이 “윤리적으로 눈이 멀었다”(Penner 77)고 설명한다. 스캐리는 눈땀과 윤리의 관계를 “눈땀, 의도적인 부도덕성이, 그[고문자]의 권력이다”(Scarry 57)라고 보다 선명하게 정리한다. 스캐리는 고문자를 눈멀게 하는 것은 힘/권력(power)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은 눈땀을 동반하고 눈땀은 권력을 요구한다. 이것은 언제나 공존하면서 죄수(적)에게 부상을 입힌다. 제국의 변방에서 불안한 징후-약탈, 도난, 행방불명, 총격, 충돌-가 나타나자, 제국의 경찰청은 졸 대령을 변방에 파견한다. 야만인이란 “전쟁기계는 끊임없이 국가[제국]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Deleuze & Guattari 2001:678), 제국의 수도에선 경계한다. 야만인들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수호자이자 폭동전문가이고 진실의 신봉자이자 취조 전문가답게, 졸 대령은 변방에서 비상 지휘권을 행사한다. 비상지휘권은 예외상황을 불러일으켰고, 예외상황은 부상 입히기(injuring)를 가져왔다. 그 결과 부상당한 적(죄수)이 속출한다. 변방에서 은퇴할 날만 기다리는 치안관사와 달리, 졸 대령은 제국은 지켜져야 한다고 확신하기에 그것을 위협하는 적(ENEMY)의 개념에 민감하다.

대령은 앞으로 나온다. 그는 번갈아가며 포로들 위에 몸을 굽히고 그들의 벌거벗은 등에 한 줌의 먼지를 문지르고, 그 위에 숯으로 무슨 말인가를 쓴다. 나는 그 단어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다. 적, 적, 적, 적. 그는 뒤로 물러서서 손을 맞잡는다. 스무 발자국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와 나는 서로를 응시한다.

그런 다음, 채찍질이 시작된다. 병사들은 단단한 초록색 등나무 회초리를 사용한다. 회초리가 내리칠 때마다, 빨래주걱이 무겁게 철썩대는 듯한 소리가 나고, 포로들의 등과 엉덩이에 붉은 채찍 자국이 생긴다.

...

검은 숯과 황토색 먼지가 땀과 피에 섞여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지금 보니, 그들의 등에 쓰인 글씨가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때릴 모양이다. (Coetzee 2003:179)

스캐리에 따르면, 시각, 청각, 혹은 후각 같은 감각과 달리, 육체적 손상에 따르는 통증은 계속되는 자극에 무디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문이란 자극이 거듭될수록 고통은 더욱 아프게 느껴진다. 하지만 졸 대령은 적과 전쟁 중임을 분명히 한다. 스캐리는 ‘부상을 입히는 것’(injuring)이 전쟁의 주목적이자 결과라고 말하는데(Scarry 63, 65), 같은 논리가 졸 대령에게 적용된다. 졸 대령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더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압력이 더 가해지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물리적인 힘이 더 가해지면 그때서야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Coetzee 2003:13)

스캐리는 고문은 고통을 가하는 육체적 행위와 심문이란 언어적 행위로 구성된다고 지적하는데(Scarry 35), 졸 대령은 질문(심문)하고 원하는 것(진실)을 얻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질문하며, 이 질문은 죄수(적)에게 부상을 입힌다. 고통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부상 입히기’란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그 이유는 졸 대령은 질문을 대답을 유발하는 동기(motive)로 오독하지만, 죄수는 대답을 배신(betrayal)으로 오독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진실이다”(Coetzee 2003:13)라는 확신은 물리적인 힘으로 고통을 가하면 진실을 얻겠다는 동기로 고문자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죄수는 ‘고통 받는 신체’(the body in pain)가 되는 순간, 그가 하는 대답은 자신의 목소리를 파괴하고, 결국엔 그의 자아와 세계까지도 파괴하고 해체한다. 고문자는 신체를 파괴함으로써 자아가 부재하게 만들고, 고통은 죄수가 스스로 자신을 배반하게 만드는 매체 역할을 하게 만든다. 고문은 죄수의 몸을 적을 위해 그 자신을 배반케 하는 무기로 강요하는 변주이다(Scarry 48). 이처럼 고문은 고문자의 권력을 극대화하므로, 희생자의 ‘부서진 몸’(broken body)으로 표현된 객관화된 고통은 탈주를 꿈꾸지만 결국 포획되어 재영토화된다.

## 2. 치안판사의 경우

“아무리 식민주의자가 인간적이어도, 그는 여전히 압제적인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Nashef 25). 이 문장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치안판사를 읽어야 한다.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치안판사는 화자이자 인간의 선(善), 혹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실천에 옮기는 유일한 인물이다. 치안판사는 제국이란 제1세계에 속해 있고, 야만인 소녀는 제3세계에 속해 있다. 흔히 타자로 지칭되는 제3세계는 제1세계의 정복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이다. 하지만 고통은 풍요롭고 탐욕스런 제1세계나 굶주리고 절망적인 제3세계에서나 똑같은 목소리를 생산한다. 어느 세계이건, 고통은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삶의 양상과 방식까지 변형시킨다. J.M. 쿛시는 고통을 통해 ‘고통 받는 신체’를 산출해내는 생명권력(bio-power)은 제국이란 공간뿐 아니라 ‘나’라는 1인칭으로 지칭되는 화자의 내부에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치안판사는 끊임없이 졸 대령과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사이에 야만인 소녀가 등장한다. 작품에서 치안판사와 졸 대령은 어둠과 빛처럼 구별되고 대조된다. 이들은 선과 악, 진실과 허위, 혹은 본다는 것과 눈이 멀었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타자의 고통을 통해 드러난다.

치안판사가 처음으로 인식하는 고통은 노인의 죽음이다. 그는 졸 대령의 부하들에게 고문당한 노인의 시신을 검사한다. “흰 수염에는 피가 엉겨 있다. 입술은 것이겨진 상태에서 말려져 범벅이 되어 있고 이는 부러져 있다. 한쪽 눈은 뒤집혀 있고, 다른 쪽 눈은 피로 범벅이 되어 아예 구멍이 되어 있다.”(Coetzee 2003:15) 치안판사가 초반에 인지하는 노인의 시신에 남겨진 고문의 흔적과 상처와 석탄불에 달군 포크를 야만인 소녀의 눈에 대어 거의 실명케 한 범 죄는 치안판사를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지식인의 삶으로 이끈다. 고문은 정보

를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 보기도 하지만, 고문만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없을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되기를 설명하면서, “동물-되기는 언제나 때, 무리, 집단, 사람들 곧 다수를 연루시킨다.”(264)고 지적한 바 있는데, 고통과의 조우는 치안판사에게 자신의 무리를 떠나, 들뢰즈와 가타리의 용어를 빌면, ‘소수자-되기’(becoming-minoritarian)를 선택하게 만든다. 이 소수자-되기의 과정은 여자 드레스를 입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구체화된다(Coetzee 2003:200). 치안판사는 비인간화를 경험함으로써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토대를 둔 사회 속 여자들처럼 하위존재(lesser being)로 추락한다. 치안판사에게 여자 드레스를 강요한 것은 그를 의도적으로 추락시키려는 의도였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되기(becoming)는 언제나 소수자-되기와 여자-되기(becoming-woman)를 거친다(Deleuze & Guattari 2001:528). 여자-되기 과정은 제국의 식민지 착취를 개인화하여 보여준다.

여자 옷을 입음으로써 치안판사는 추락-들뢰즈와 가타리 표현을 빌면 탈영토화-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실체에 직면한다. 소수자-되기 혹은 여자-되기는 치안판사에게 강요된 ‘동물-되기’인데, 이것이 야만인 소녀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치안판사가 야만인 소녀의 몸에 집착하고 그녀의 몸에 난 상처(scars)를 해독하려고 한다. 그것은 판사가 야만인의 유적지에서 발굴한 포플러 목판(poplar slips)을 해석하는 것과 연결된다. 유적지에서 찾아낸 유물을 해독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기 때문이다. 치안판사는 그의 고백처럼 평생 교양 있는 행동을 신봉해온 사람이다. 이런 그의 모습은 죄수들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의사를 불러 고문당한 상처를 치료하게 하는데서 나타난다(Coetzee 2003:42-44). 소설은 치안판사를 양심을 따르는 자유주의자이며 ‘의로운 판사’로 소개하지만, 동시에 ‘양의 탈을 쓴 입은 제국의 재갈’로도 소개한다(195, 125). 우르크하르트(Urquhart)는 야만인들을 돕는 행위를 제국에 일조한 것에 대한 속죄 혹은 정당화로 해석한다(Urquhart 6). 바바라 에크스타인(Barbara Eckstein) 역시 치안판사는 졸 대령에게 “네가 적이고 네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적이다”라고 까지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Eckstein 189). 이것은 “자신의 시선과 시야를 절대화”(정재식 43) 할 때 생긴 것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신의 시선을 절대화할 경우 진실을 보려는 시선이 자기 기만적인 시선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쿿시는 치안판사를 통해 보여준다.

### III. 『눈먼 자들의 도시』를 통해 본 강요된 ‘동물-되기’

무기와 도구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지팡이는 신체의 한계를 넘어 팔의 길이와 힘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도구이지만 고문자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일상의 도구는 무기가 된다.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도구로 국경감시에 널리 활용되지만, 동시에 국경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Kaplan 외 410, 414). 이런 전복은 스캐리의 논의에도 이어진다. 적/죄수에게 고통받는 신체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 제공자(agent)로 작동한다(Scarry 47).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시되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혹은 눈은 멀었으나 보는, 이런 모순된 현상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나타난다. 주제 사라마구(José Saramago)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Blindness*)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이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가상(假想)의 설정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백색실명(white blindness)에 전염되고, 그 순간 눈땀은 전

염을 통해 증식하고 고통, 갈등과 전쟁을 작동시킨다.

한 남자가 교통신호를 기다리며 차 안에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먼다. 남자는 놀라 두려워 외친다.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 누가 날 좀 집으로 데려다주세요”(Saramago 2002:9). 그런데 눈이 머는 현상은 전염병처럼 퍼져간다. 자동차 운전자가 겪은 실명(失明)은 안과의사와 그의 차를 훔친 사람에게 전염되었다. 이 실명은 임시로 백색질 병이라고 불렸다(65). 눈이 머는 것이 전염병처럼 진행되자,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떠다. 충격이 자못 컸는지, 눈이 먼 첫 번째 남자는 실명을 경험한 첫날 밤 장님이 된 꿈을 꾸었다(28). 실명/눈멀은 서서히 인간을 동물로 퇴화시킨다. 실명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무리(pack)를 이루는데, 이것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되기’(becoming)라고 표현한 과정을 산출한다. 생존이란 절박감은 눈먼 자들에게 동물-되기, 소수자-되기, 여자-되기를 강요한다.

### 1. 의사 아내의 경우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생성의 주체는 남성들이다. 눈멀은 병원에 수용된 모든 사람들을 되기 혹은 생성을 강요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 개의 고원』에서 “생성들은 소수적이며, 모든 생성은 소수자-되기이[다]”(Deleuze & Guattari 2001:550)고 지적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우리는 동물의 실재인 동시에 인간의 동물-되기의 실재이다”(461)라고 적시한다.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선 줄 대령이 동물-되기를 강요하지만, 『눈먼 자들의 도시』에선 실명이란 한계를 경험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동물-되기를 선택한다. 배고픔과 두려움에 이들은 자신을 지켜줄 무리를 찾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이 작동한다. 총이란 무기를 가진 자가 두목이 되고, 식량배급을 독점한다. 눈먼 깡패들은 욕정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고, 탐욕에 젖어 야수(野獸)처럼 변해갔다. 실명은 모든 사람의 직업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동시에 각자의 내면에 감춰진 야수성을 드러내는 촉매로 작동한다(Nashef 33). 다수가 이 무리에 합류한다. 합류를 거부한 이들은 실명과 배고픔, 그리고 식량을 얻기 위해 동물-되기/여자-되기를 강요당한다(Saramago 1997:178-185; cf Nashef 37-38).

실명은 전염, 배제, 격리, 수용 같은 이질적인 항들을 작동시킨다. 도덕과 가치가 아닌 생존과 필요란 조합 속에서, 각자의 ‘자아’가 요동친다. 다수는 총으로 상징되는 힘을 가진 무리에 매혹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양분되는 병동에서 소수는 반자연적인 선택, 동물-되기를 선택한다. 강제 수용된 정신병동에서, 시민들은 시력을 잃고 난 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눈이 먼 사람들 중 힘센 자들(깡패두목과 그의 무리)이 식량을 독점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빵을 빼앗아[갔다]”(Saramago 2002:297). 수치심이 사라지자,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동물의 본성”이 드러났고, 병원 속 공간은 지옥으로 변했다(300, 275). 눈멀은 퇴화, 탈영토화를 강요한다. 하지만 소수는 수치심이 없는 무리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야만(barbarism)을 거부한다. 이런 소수를 이끄는 사람은 안과의사의 아내이다. 그녀는 도덕이란 가치가 무너진 병동에서 인간의 선한 모습을 대변한다.

의사의 아내는 눈멀이란 공포를 지켜보는 증인(witness)이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Nashef 37, 32). 본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뜻한다. 성경엔 보다(seeing)란 이미지가 자주 쓰인다. 예수는 참되게 보고 듣는 것을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마 13:15). 이 관계를 소설에선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눈은 내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눈은 우리가 입으로는 부정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

우가 많다”(Saramago 2002:31). 눈멀이 주는 역설은 눈먼 자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이다. 의사의 아내는,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치안관사처럼, 의도적으로 소수자-되기를 선택한다. 소수자-되기가 동물-되기, 여자-되기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아내는 눈먼 남편을 따라 병원에 수용된다. 그녀의 결정은 도덕적 상상력을 따른 것이다.

## 2. 다른 인물들의 경우

안과의사의 아내가 보여주는 도덕적 상상력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공감(empathy)이란 형태로 나타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에서 “사물이 폭발하여 동일성을 잃어버려도 단어는 여전히 사물들이 동일성을 복원해주거나 새로운 동일성을 만들어 준다”(Deleuze & Guattari 2001:62)라고 지적한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실명/눈멀음으로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재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감이란 단어는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를 배고픔, 성욕, 혹은 본다는 것 같은 외연적인 용법에서 찾지 않는다. 외연적인 요소가 강조될수록 실체는 변형되고 본질은 와해된다. 여기서 인간의 동물-되기가 이루어진다.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권위에 기댈수록 인간은 비물질적 변형을 이루며 추상기계를 닮아간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은 무리이며, 무리는 전염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며 변형된다”(Deleuze & Guattari 2001:460)고 주장한다.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졸 대령은 비상지휘권을 행사하는 동안만 권위를 가진다. 그는 폭력이란 도구로 개체 간에 고통을 전염시키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그는 권위를 잃는다는 것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보면 실명이란 예외상황이 규칙화되는 병동에서, 권력은 총을 든 깡패두목에게 주어진다. 그가 죽은 후, 그 자리가 눈먼 회계사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회계사 역시 총을 쏠 때마다 권위를 잃는다. 모두들 남은 총알의 개수를 알기 때문이다(Saramago 2002:293-4). 이들의 권력은 남은 총알 개수에 의해 규정되므로, 권력은 제한된 효력 곧 의미 없는 효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생존 혹은 배고픔이란 특성 혹은 속성을 가진 동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총이 주는 권력에 매혹되며, 공감을 반자연적 관여로 인식한다.

눈멀은 다수가 경험한 전염(병)이었지만, 눈멀이 통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소수의 눈먼 자들만이 경험한다. 병동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예외상황으로 창출된 감금은 동물-되기 과정에 일조한다. 화자는 안과 의사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 [안과의사]는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 이렇게 더러웠던 때가 있었을까. 동물이 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Saramago 2002:134). 안과의사가 느낀 더러움은 배변의 악취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명이 수용자들을 동물화(animalization)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눈멀은 눈멀을 전제한다. 검은 색 안경을 쓴 여자의 고백—“어떤 면에서는 나도 눈이 멀었지, 당신들의 먼눈이 내 눈도 멀게 한 거야”(418-9)—은 이것을 보여준다. 눈멀은 전파, 점유, 전염, 팽창된다.

검은 색 안경을 쓴 여자는 눈멀이 시각적 장애(visual disturbance)를 가져왔음을 인지한다.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이야기에서 야수는 남성이고 그는 여자의 사랑에 의해서만 마법에서 벗어난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선 그 마법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소수의 눈먼 자들이 혼란 가운데도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공감은 시력을 회복한 후 서로의 진짜 초라한 모습을 확인한 뒤에도 지속된다. 이들은 함께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픔 속에서 이들은 이미 타인과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응, 알고 싶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461)

소설 속 인물들은 처음부터 눈이 멀었는지도 모른다. 눈멀/실명의 양가성은 눈멀이 각자의 내면의 편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메리 셸리(Mary Shelley)가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8)에서 화자의 입을 빌어 한 말, “치명적인 편견으로 눈이 가리어지자, 감정과 친절할 친구를 보아야 할 자리에서 그들은 가증한 괴물만 본다”(Shelley 130)는 눈먼 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보여준다. 눈멀은 도덕적 눈멀(moral blindness)임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주제 사라마구는 『눈먼 자들의 도시』를 통해 보여준다.

### III. 결론

고문과 눈멀이란 예외상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안에 들어 있는 실재(reality)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J.M. 쿣시와 주제 사라마구는 『야만인을 기다리며』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고통과 눈멀이란 예외상황이 인간에게 ‘동물-되기’를 강요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명과 고통은 인간을 ‘고통 받는 신체’로 전락시키며, 그 순간 인간은 ‘발가벗은 생명’이 된다. 인간은 인간-되기를 중단하고 동물-되기를 지향한다. 동물-되기는 여자-되기와 소수자-되기를 동반한다. 이 추락은 인간이 갖는 존재의 모순성을 드러낸다. 인간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야만인을 기다리며』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졸대령과 치안판사이다. 졸대령은 제국의 보호자로 등장한다. 그는 야만인을 제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하고, 야만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치안판사를 내부의 적으로 간주한다. 졸대령은 제국이란 텍스트에서 지켜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한다. 그는 야만인 소녀와 노인 뿐 아니라 같은 제국의 일원인 치안판사마저 고문한다. 그에게 고문은 적에게 부상을 입히는 행위이다. 고문행위는 적의 목소리를 파괴하고 그의 세계와 자아마저 해체하지만, 부상을 입히는 행위는 정당화된다. 그는 도덕적으로 눈이 멀었으나, 이러한 눈멀은 치안판사에게도 나타난다. 그 역시 야만인 소녀를 통해 자신의 눈멀을 정당화한다.

고통 받는 신체는 인간을 동물로 추락시킨다. 이런 추락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탈영토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강요된 동물-되기의 모습으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나타난다. 안과의사의 아내를 제외하곤 모두들 눈이 멀었다. 병동에서 힘센 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식량을 독점한다. 눈멀은 전염을 통해 증식하며, 인간의 퇴화와 탈영토화를 강요한다. 눈멀은 두 작품 모두에서 인간에게 동물-되기를 강요하지만, 비록 소수지만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여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소수자-되기’를 선택한 순간, 이들은 인간의 눈멀(blindness)이 ‘눈이 멀었으나 볼 수 있는’ 통찰(insight)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인디고 연구소. (2012).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슬라보예 지젝 인터뷰』. 서울: 궁리.
- 정재식. (2008). “해체론의 눈(Eyes)과 자화상: 눈땀,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비평과 이론』 13(2). 31-54.
- Adams, K. (2015). “Acts without Agents: The Language of Torture in J.M. Coetzee’s *Waiting for the Barbarians*.” *ariel: 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46(3). 165-177.
- Agamben, G.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CA: Stanford UP. 박진우 역(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벗어날 수 없는 생명』 서울: 새물결.
- Beecroft, A. (2011). “Blindness and Literacy in the Lives of Homer.” *Classical Quarterly* 6(1) 1-18.
- Bolt, D. (2007). “Saramago’s Blindness: Humans or Animals?” *Explicator* 66(1). 44-47.
- Bordo, S. (1987). *The Flight to Objectivity: Essays on Cartesianism and Culture*. Albany: SUNY P.
- Coetzee, J.M. (1980). *Waiting for the Barbarians*. New York: Penguin.
- Dante, A. (1954). *The Divine Comedy*. New York: Norton.
- Deleuze, G. & F. Guattari. (2004).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London: Continuum. 김재인 역(2001).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 Derrida, J. (1993). *Memoirs of the Blind*. Chicago: U of Chicago P.
- Eckstein, B. (1989). “The Body, the Word, and the State: J.M. Coetzee’s “Waiting for the Barbarians”.” *Novel: A Forum on Fiction* 22(2). 175-198.
- Foucault, M.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5-76*, ed. Mauro Bertani and Alessandro Fontana. New York: Picador.
- Gómez-Fernández, C.M. (2011). “Beyond Vision: The Role of Perception in Denise Levertov’s Examination of Blindness.” *Renaissance* 63(4). 287-306.
- Kaplan, C., E. Loyer & E.C. Daniels. (2013). “Precision Targets: GPS the Militarization of Everyday Life.”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8. 397-420.
- Kerr, D. (2000). “Three Ways of Going Wrong: Kipling, Conrad, Coetzee.” *Modern Language Review* 95(1). 18-27.
- Kleege, G. (2009). “Introduction: Blindness and Literature.”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3(2). 113-114.
- Lee, J.I. (2015). “Dante’s Understanding of God’s Justice in *The Inferno*.”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8(2). 203-224.
- Levertov, D. (1973). *The Poet in the World*. New York: New Directions.
- Linett, M. (2013). “Blindness and Intimacy in Early Twentieth Literature.” *Mosaic: a journal of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46(3). 27-42.
- Nashef, H. (2010). “Becomings in J.M. Coetzee’s *Waiting for the Barbarians* and Jose Saramago’s *Blindness*.”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47(1). 21-41.
- Penner, D. (1989). *Countries of the Mind: the Fiction of J.M. Coetzee*. New York:

- Greenwood Press.
- Pierce, R. (2012). “I Stumbled When I Saw”: Interpreting Gloucester’s Blindness in King Lear.” *Philosophy and Literature* 36(1). 153-165.
- Saramago, J. (1997). *Blindness*. New York: A Harvest Book. 정영목 역(2002). 『눈먼 자들의 도시』 서울: 해냄.
- Scarry, E. (1985). *The Body in Pa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World*. Oxford: Oxford UP.
- Shelley, M. (1992).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Hammondswoth: Penguin.
- Urquhart, T. (2006). “Truth, Reconcili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State: Coetzee’s “Waiting for the Barbarian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2(1). 1-21.